

정부, 대대적 온실가스 감축 검토

2005년 대비 4% 감축 추진 ... 석유화학 포함 관련기업 반발 예상

정부가 녹색성장 정책의 과감한 추진을 위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 감축하는 안을 마련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양수길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은 10월28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제3차 세계포럼 전체회의 발제자로 나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묻는 질문에 “한국은 야심적 녹색성장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겠느냐”며 “개인적으로 약 4% 정도 감축안이 마련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LED(Light Emitting Diode) 보급 확산,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은 물론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개발을 통해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녹색성장의 혜택을 얻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양수길 원장은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산업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녹색성장위는 8월 국내 온실가스를 2005년 기준으로 ▲8% 증가 ▲동결 ▲4% 감소 등 감축목표 시나리오 3개를 발표한 바 있다.

2005년 기준 4% 감축안은 기존 정책을 계속 유지할 때 2020년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IEA(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5억3800만톤CO₂ (정부발표 기준 5억9400만톤CO)으로 세계에서 16번째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양수길 원장은 “정부가 녹색성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장 적극적인 목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한 것”이라며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0/29>